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파키스탄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2020년5월18일 | 조사역(G3) 이미지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796천 km <sup>2</sup> 	<b>인구</b> 216.56백만명 (2019 <sup>e</sup> ) 	<b>정치체제</b> 의원내각제 (연방공화국) 	<b>대외정책</b> 비동맹중립, 이슬람은건노선 표방 
<b>GDP</b> 2,825.2억 달러 (2019 <sup>e</sup> ) 	<b>1인당GDP</b> 1,304.5 달러 (2019 <sup>e</sup> ) 	<b>통화단위</b> Pakistani Rupee(PR) 	<b>환율(U\$기준)</b> 150.04 (2019 <sup>e</sup> ) 

-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은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 해와 인접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로 힌두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연합하여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수립됨. 이후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 연방을 탈퇴하여 현재의 영토로 남게 됨.
- 인도와의 카슈미르 영토 분쟁, 이슬람 수니파-시아파 간 내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탈레반 무장 세력의 위협 등 테러와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국가 경제는 석유 산업과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적이며, 불안정한 치안과 인프라 부족, 정부의 군사비 지출 등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진함. 그러나 향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물류 허브 도약 또는 미개발된 다양한 천연자원 개발의 성장 잠재력을 가졌음.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며 중국 은행들에 대규모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빠르게 누적되며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2019년 22번째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3. 11. 7 수교 (북한과는 1972. 11. 19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8), 해운협정('84), 문화협정('86), 과학·기술협력협정('86), 경제·기술·과학협력·무역증진협정('86), 이중과세방지협정('87), 투자증진·보호협정('90), 항공협정('9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0), 무상원조협정('13)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1,006,764	1,018,001	832,713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제품
수입	317,443	379,953	418,831	석유제품, 기호식품,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12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213건, 288백만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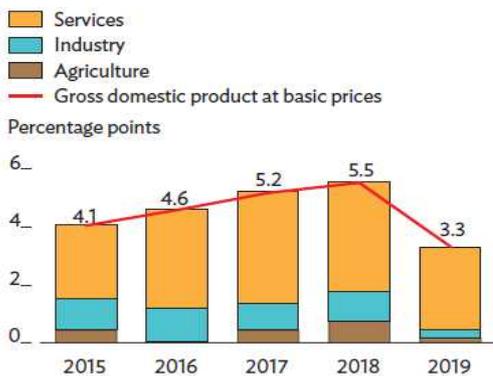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4.7	5.5	5.6	5.8	3.3
소비자물가상승률	2.5	3.9	5.0	5.3	9.4
재정수지/GDP	-5.3	-4.6	-5.8	-6.5	-8.9

자료: IMF, EIU

### 경제성장률은 2019년 3.3%에 그친 데 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역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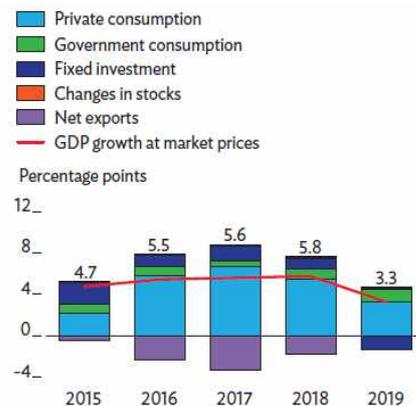
- 파키스탄 경제는 2017년부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력·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2018년 5.8%의 성장을 달성하였음.
- 그러나 2019년에는 농업, 제조업 등의 성장 둔화, 높은 인플레이션과 수입 감소로 인한 국내소비 및 수출 감소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3% 성장에 그쳤음.
- CPEC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외환위기에 직면한 파키스탄 정부는 2019년 7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전환 노력, 공공 서비스 지출 축소 및 세율 인상 등의 정책을 실시 중임.

<경제성장률에 부문별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ADB

<경제성장률에 부문별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ADB

- 2020년 1분기 메뚜기 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 소비 감소, 향후 IMF 프로그램 이행 지속 등으로 인해 2020년 파키스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파키스탄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 -1.5%, EIU -0.9%, IHS Markit -1.4%로 각각 전망함.

##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 파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동 부양책에는 파키스탄 노동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설탕·밀 등 식량 관련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됨. 아울러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13.25%였던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5월 중순 현재 8%로 유지하고 있음.
- 유엔무역투자개발회의(UNCTAD)는 파키스탄이 자본유출 증가, 상품가격 및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파키스탄 정부는 경기부양책 시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IMF, 세계은행, ADB 등과 자금 지원에 합의함.
- 파키스탄은 IMF로부터 13.9억 달러의 대출(RFI, Rapid Financing Instrument), 세계은행으로부터 10억 달러, ADB로부터 250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기로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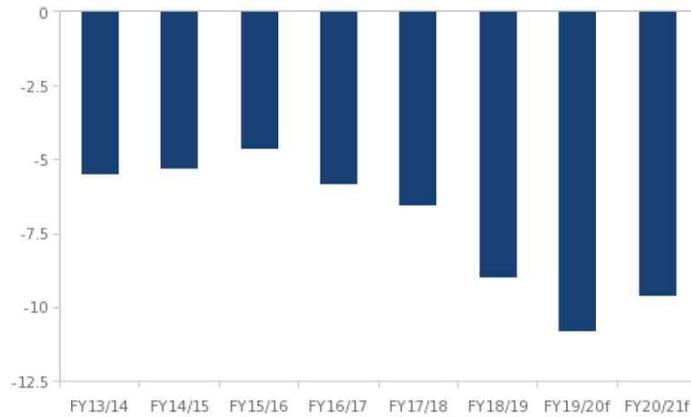
## 수입물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4.1%p 상승한 9.4% 기록

- IMF 구제금융 도입 조건으로 기존의 부분변동환율제를 포기하고 시장결정환율제를 도입함에 따른 루피화 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결과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5.3%) 대비 4.1%p 상승한 9.4%를 기록함.
- 평균환율(미 달러당) : 104.77('16) → 105.46('17) → 121.82('18) → 150.04('19)
-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에 대한 국제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루피화 가치 하락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연평균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0년 만에 최대 수준 기록

- 파키스탄 정부는 예산의 대부분을 외채 상환, 군사비용, 사회 보조금에 지출하는 데 반해 세금징수 환경이 열악하고, 주요 수출품목이 섬유 등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에 집중되어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를 겪고 있음. 2019년 파키스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8.9%로 30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함.
- IMF 프로그램에 따른 세수 확대 등이 재정수지 적자 개선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부양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 추이(%)>



출처: 파키스탄 재무부, Fitch Solutions

-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인한 루피화 가치 하락, 향후 호의적이지 않은 시장 여건에 대비한 정부의 선제적 현금 예금 증액 등으로 2019년 말 기준 파키스탄의 GDP 대비 공적채무 (public debt) 비율은 재정 책임 및 부채 제한법의 상한선(60%)을 훨씬 웃도는 87.8%에 달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2,776	-7,094	-16,927	-19,482	-7,369
경상수지/GDP	-1.0	-2.6	-5.6	-6.2	-2.6
상 품 수 지	-17,108	-20,867	-30,506	-32,816	-22,134
상 품 수 출	22,707	21,820	23,163	24,839	24,780
상 품 수 입	39,815	42,687	53,669	57,655	46,914
외 환 보 유 액	17,157	19,016	15,203	8,763	13,169
총 외 채	65,727	72,157	84,167	96,032	104,855
총외채잔액/GDP	24.3	25.9	27.6	30.5	37.1
D.S.R.	19.2	19.5	24.4	25.5	34.4

자료: IMF, EIU

### 2019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2.6%로 적자 추세 지속

- 파키스탄은 석유·의류, 쌀, 과일 등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원자재, 소비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교역구조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9년에는 루피화 가치 하락, 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상품수입 감소 폭이 상품수출 감소 폭을 크게 상회하여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음.
-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8/19회계년도 파키스탄 주요 수출품은 석유(56%), 농·수산물(20%), 기타 제조업 제품(16%), 광물(3%) 등임.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중국, 유럽, UAE, 아프가니스탄 등임.
- 민간소비는 대부분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하며, 해외근로자의 송금으로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해외근로자 송금은 222억 달러로 GDP의 약 7.8%에 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송금이 54%를 차지하고 있음.

## 외채상환능력

### CPEC의 무리한 추진으로 외환위기에 몰려 2019년 IMF 구제금융 도입

- 파키스탄은 CPEC 사업 추진으로 무리하게 자본재를 수입하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기 시작함. 또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을 위한 중국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차입 증가로 외채가 증가하여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악화 되어 2019년 7월 6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EFF, Extended Fund Facility\*)을 지원받게 됨.
  - \* 일시적인 외환 부족시 지원하는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과 달리 구조적인 외화 부족 문제 발생 시 지원하며, 차관 지원을 위한 정책권고안 또는 구조개선에 초점
-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 완화, 경제성장 등을 위해 세수 기반 확대, 변동환율제 도입, 중앙은행의 자율성 확대, 국영기업 개혁, 가스·전기 요금 인상,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권고사항 이행 등을 요구함.
- 2019년 12월 IMF Country Report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2020년 1분기 회계기준 변동환율제 도입, 인플레이션 안정화, 재정 수입 증대 등 IMF의 권고사항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원금액 60억 달러 중 현재까지 14.4억 달러가 집행되었음.
- IMF 이외에도 2019년 6월 세계은행에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 5억 달러, 2019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 관세 및 조세 정책 개혁을 위해 5억 달러를 지원함.
- 파키스탄은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6차례(1972, 1974, 1981, 1999, 2001 1월 및 12월) 채무재조정 및 IMF로부터 총 22차례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록, 외환보유액 고갈 등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국제기구와 여러 채권국들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등 외채 부담이 높은 수준임.
  - 2019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7.1%,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60.3%이며, 경상수지 적자 지속과 외채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이 340.1%,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34.4%를 기록하고 있어 외채관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19년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월평균 수입액의 2.5개월분으로 IMF 최소 권고기준인 3개월을 하회함.
  - 단기적으로는 외채 상환을 위한 외환보유고 마련,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구조 해결을 위한 재정자립도 제고가 파키스탄의 경제의 과제로 남아있음.

## 구조적취약성

###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수출입 구조

- 에너지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유 등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상승시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수출경쟁력도 동시에 저하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손실을 보충하고 각종 에너지 요금 및 금리를 인하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민간소비 규모는 해외근로자 송금 규모의 변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해외근로자 송금액 중 54%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어 최근과 같은 저유가 지속으로 GCC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로 민간소비 또한 위축될 수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인구 규모는 강점이나 낮은 교육수준으로 양질의 인력 확보 어려움

- 파키스탄 내 소수민족 혹은 종교분파 출신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렵고, 교육 등 인적자본 활용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부족하여 세계 6위 수준의 풍부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UNESCO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아시아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문맹률이 높음.
- 보건, 교육 등 삶의 질에 관해 UNDP가 발표하는 2019년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총 189개국 중 152위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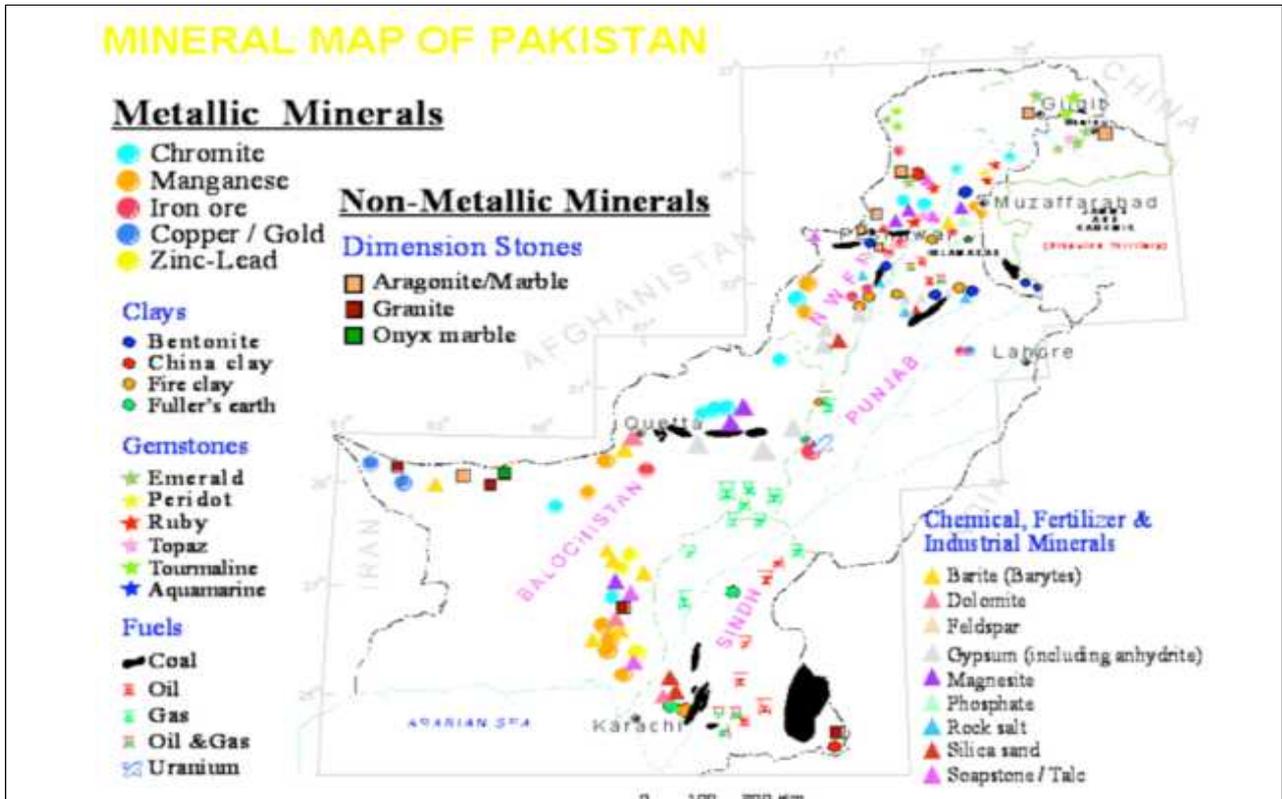
###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물류 허브로의 역할 및 주변국들로부터의 투자 유치 기대

- 파키스탄은 서쪽으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해에 면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파키스탄은 CPEC 사업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이외에도 파키스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주변국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인프라 사업 발굴에 적극적임.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Aramco와 파키스탄 정부는 과다르 항만 지역에 100억 달러 규모 정유소와 1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키로 합의함.
-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를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에 공급하는 1,800km 파이프라인 설치 프로젝트인 TAPI(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Pipeline Project)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당사국은 2014년 SPC 설립 및 ADB 자금을 확보하였음. 상업적 이슈 및 아프가니스탄 내 치안 문제로 건설이 지연되었으나, 2023년 완공 예정으로 에너지 안보 제고 및 가스관 통과로 인한 수익 창출 등이 예상됨.

## 풍부한 인구와 광물자원 보유

- 파키스탄은 매년 약 2%씩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2억명이 넘는 세계 6위의 인구 대국임. 15~54세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아 향후 구매력 증대와 민간소비 증가 시 거대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 석탄, 천연가스, 구리,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치안 문제 해결, 인프라 및 기술 발전 시 자원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과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발루치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금, 석탄, 구리, 철광석, 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파키스탄 내 최대 광산인 Reko Diq 광산에는 세계 5위 규모의 금과 구리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됨. 또한, 1991년 신드 주 Thar 사막에서 석탄 광산이 발견되면서 세계 7위 규모(약 1,750억 톤)의 석탄량 매장 국가로 등극함.
- 다만, 분리주의 및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가 활발하여 파키스탄 내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발루치스탄 및 북서부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개발이 미진하여 가스, 석유, 석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파키스탄 광물자원 지도>



출처 : 파키스탄 지리 정보부(GSP)

## 열악한 인프라와 테러 위험 등 불안정한 치안이 경제성장 저해요소

- 파키스탄은 테러 위험과 재정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가 부진하며, 열악한 교통·전력·상수도·통신 환경은 생산원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자 섬유 및 농수산물 위주의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본격 발전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함.
- 파키스탄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20에서 작년보다 28위 상승한 108위(190개 국가 중)를 기록하며 창업, 건설허가, 자산등록, 세금 납부절차 관련 부문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으나, 경제활동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도 파키스탄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110위로 하위에 그쳤으며, 특히 항공(93위), 전기공급(111위), 수도공급(125위), ICT(131위) 부문이 취약한 상태임.
- IMF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유엔개발계획(UNDP)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이 2025년에 극심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함.

## 정책성과

### CPEC는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부채의 덫으로 작용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사업(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은 2015년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 항에서 중국 신장까지를 육로로 연결하는 도로·발전소 건설 및 경제특구(SEZ) 조성을 포함하는 인프라 개발 사업임. 현재 CPEC 사업은 62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에너지·인프라 투자 협력 단계를 넘어 2단계 산업간 협력 확대 단계에 진입하였음.
- 다국적 회계컨설팅업체 Deloitte는 CPEC 사업과 관련해 2030년까지 200만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GDP 2.5%p 증가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하였으며, 프로젝트 성공시 경제 요충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지녔던 파키스탄이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하고 현재 열악한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2019년 파키스탄 전력 생산량이 CPEC 발전소 사업의 완공으로 전년대비 40.5% 증가하였음.
- 한편, 파키스탄 정부의 부정부패와 공공사업 경험 부족, 지역 주민의 반발,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 테러 문제 등은 CPEC 사업 수행상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CPEC 사업은 파키스탄의 중국 의존도 심화 및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상환 부담을 초래하여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CPEC 사업으로 인한 외채상환 부담으로 파키스탄은 2019년 IMF,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

## 정치동향

### 임란 칸 정부는 2023년까지 안정적인 정권 유지 전망

- 2018년 7월 총선에서 반부패를 앞세운 정당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이 군소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문민정부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선거 과정에서 군부가 친군부 성향인 임란 칸(Imran Khan) 총리 및 PTI를 밀어주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주요 야당인 파키스탄무슬림연맹(PML-N)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의 이전 수장들이 현재 탈세, 뇌물 등으로 수사 중인 상황 및 군부와 집권당의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현 정부는 만기인 2023년까지 안정적인 정책 추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PTI는 파키스탄 내 4개의 주 정부 중 편잡, 신드, 콰이버-팍툰화의 국정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고, 발루치스탄에서도 발루치스탄 아와미당을 지원하며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2018년 9월 Arif Alvi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 임기는 5년임. 파키스탄은 다수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며, 총리가 대통령을 선임하는 정치 구조임. 총리는 경제, 정치, 외교, 군사(핵미사일 관리 포함)까지 총괄하는 동국의 실질적 국가 지도자이며, 대통령의 경우 2010년 4월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의 의회 및 총리 해임권 삭제 등 정치적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인 직위에 불과하게 되었음.

#### <파키스탄 주요 정당 요약>

정 당	정책 노선	수장	기타
파키스탄정의운동당 (PTI, Pakistan Tehreek-e-Insaf)	친군부, 친이슬람세력, 반서방, 반인도	임란 칸	- 2018년 7월 이후 현 집권
파키스탄무슬림연맹 (PML-N, Pakistan Muslim League-Nawaz)	반군부, 친서방, 친인도	쉐바즈 세리프	- 지난 10년간 집권 - 부정부패 의혹

### 정책 전반에 대한 군부의 실질적인 영향 지속

-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이후 문민정부와 군부가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장악하였음. 2008년 이후 문민 정부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군부는 국제관계 및 안보 분야에서 여전히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함.
- 쿠데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슬람 이념 하의 국가 통합을 강조하여 온 파키스탄 군부는 냉전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군과 맞선 이슬람 반군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에 중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군부의 힘을 키우는 동시에 탈레반 세력을 성장시키는 배경이 되었음. 이후 인도 카슈미르 지역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활동을 비밀리에 지원하는 등 극단주의 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혹이 지배적임.
- 현 정부는 2019년 8월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참모총장의 3년 재임을 승인하는 등 군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 중임. PTI는 의회 내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군소 정당과 연합 중이며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세금정책으로 인한 서민층의 반정부 정서로 인해 군부와의 결속이 불가피함.

## 사회동향

###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의혹

- 파키스탄은 테러 조직 육성 및 자금 지원의 의혹을 받아 각종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관련 규제를 받고 있음. 2020년 2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27개의 권고사항 중 14개만 이행한 파키스탄에 대해 이행취약국가(grey list) 지위를 유지함. 올해 9월 FATF 권고사항 준수 여부 재점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시 고위험국가(black list)로 분류되어 각종 국제금융 활동에 제약이 우려됨.
- 파키스탄은 2012년 FATF에 의해 grey list로 분류되었으며, 2015년 해제되었다가 2018년 6월 다시 grey list로 격하됨.
-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20위이며, 평점은 100점 만점에 32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다양한 분쟁 및 테러 발발 등으로 사회불안 지속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수차례 군사적 쿠데타가 발생했고 과격 이슬람 세력의 테러 활동, 종파 간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잦은 분쟁 및 테러 발생은 치안을 불안정하게 하고 파키스탄 내 투자를 감소시킴.
- 파키스탄 내 주요 분쟁은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탈레반의 무장투쟁, 발루치스탄 지역의 분리주의자 테러, 경제중심지인 카라치 지역의 갱단·종파 간 테러 폭력사태, 편잡 주와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 인도 테러로 구분할 수 있음.
- 파키스탄 정부가 페샤와르 군인 공립학교 테러(2014년 12월)를 계기로 2016년 1월 수립한 대 테러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시행한 이후 테러 건수가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파키스탄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적인 테러 및 종교·지역 패권 문제 등으로 인한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민주주의 정착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

- 파키스탄은 소수민족 혹은 소수종파 출신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려워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 또한, 군부가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정책에도 관여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이 강하며, 민주주의 시민단체에 대한 군부의 억압이 심해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파키스탄 정부는 2019년 6월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지역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가 개발 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육군 참모총장인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를 위원으로 임명하고, 동년 11월 퇴역 장교인 아심 살림 바즈와를 CPEC 의장직에 임명함.
- 2020년 1월 정부 요청 시 소셜미디어 업체는 SNS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당국에 협조하고 불법으로 간주 되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비협조 시 정보당국에 의해 파키스탄에서 차단당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함.
- 파키스탄은 EIU의 2019년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8위, 국경없는기자회의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145위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모두 낮은 수준임.

## 국제관계

### 카슈미르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와의 오랜 갈등

- 인도와 파키스탄은 본래 한 나라였으나, 영국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을 방해하려는 영국의 분할통치 책략으로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힌두교 국가인 인도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카슈미르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적 마찰과 영유권 분쟁을 지속해옴.
- 2019년 2월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경찰 40여 명이 사망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양국간 공중전까지 발발하였으나, 3월 인도 공군 포로 송환 및 임란 칸 총리의 화해 제스처로 긴장 국면이 진정되었음.
- 이어 동년 8월 인도 정부가 잠무-카슈미르의 특별자치권을 인정하는 인도 헌법 제370조를 폐지하고 잠무-카슈미르 내 군대 배치, 관광 규제, 정치지도자 체포, 인터넷 통제 등을 단행하여 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12월에는 인도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민법을 개정하였으나, 실제 무슬림만 배제하여 갈등이 증폭됨.
-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게릴라성 테러와 무력 충돌은 오랜 기간 지속된 뿌리 깊은 갈등이며, 양국 모두 핵보유국으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재정 및 군사적 도움을 위해 전략적 우호관계 유지

-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CPEC의 에너지,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던 노선에서 친중국 노선으로 외교 중심축을 옮긴 것으로 분석됨.
- 중국 또한 과거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을 인도와 파키스탄 양자 간의 문제로 간주해왔으나, CPEC 사업이 카슈미르 지역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파키스탄의 영유권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여 인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또한, 미국-인도의 원자력 협력에 대응해 중국 파키스탄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인도-미국 vs 파키스탄-중국'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을 보임.
- 한편,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외국민 송금 및 투자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양국간 상부상조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EU, 2022년까지 파키스탄에 대한 GSP+ 지위 유지

- 유럽연합(EU)은 2020년 3월 파키스탄에 대한 GSP+ 지위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함. 파키스탄은 EU로부터 2014년 처음 GSP+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EU 앞 수출 시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
- EU의 GSP+(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Plus)란 EU의 일반특혜관세 제도의 일종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상품 수입 시 관세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개발도상국은 동 혜택을 입는 대신 인권, 노동권, 환경 보호, 굿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27개의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제도임.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대 EU 무역거래 중 수출은 연 8.4%씩 증가하여 2014년 41억 유로에서 2018년 57억 유로로 증대됨.

## 핵보유국으로서 국제관계에서 발언권 보유

- 파키스탄은 전 세계 총 9개 핵보유국 중의 하나로,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인정하지 않는 핵보유국이지만 핵보유국이라는 군사적 강점을 내세워 군사·외교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제고하는 국가임.
- 냉전 이후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면서 핵보유국인 인도를 대적하기 위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작하여, 1998년 핵실험 이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알려지게 됨.
  - \* 핵 보유 9개국
    - NPT 인정 핵보유국(5개국,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동일) :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 NPT 비인정 핵보유국(4개국)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 국제경제평화연구소의 2019년 세계평화지수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전년 대비 2위 하락한 153위(163개 국가 중)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함.

## 외채상환태도

### ECA 앞 연체 비율은 높은 편이나 채무재조정 대상 원리금은 정상 상환 중

- 2019년 9월 말 기준 파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 잔액은 3,093.2백만 달러(단기 651.5백만 달러, 중장기 2,441.7달러이며)이며, 이 중 1,181백만 달러의 중장기 채무가 연체 중임.
- 연체 비율이 38.1%로 높은 편이나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연체는 없으며, 중장기 연체는 대부분 채무 재조정 기산일(1997년 9월 30일) 이전 채무에 대한 연체임. 2019년 9월 말 기준 채무재조정 대상 원리금은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19.06)	7등급(2019.02)
Moody's	B3 (2019.12)	B3 (2018.06)
Fitch	B- (2020.02)	B- (2018.12)

### 국제신용평가3사는 파키스탄에 대해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 중이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금년 중 등급 하락 전망

- OECD는 파키스탄에 대하여 최하위인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3사 모두 외채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파키스탄의 IMF 구제금융 재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키스탄에 대해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파키스탄의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 급속히 침체되고 있어 금년 중 등급 하락이 전망됨.

- 2019년 파키스탄 경제는 산업 전반의 성장 둔화, 국내소비와 수출의 동반 감소로 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인 3.3%의 성장에 그쳤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8.9%로 3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으며, 경상수지 적자 추세도 지속됨.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자본재 수입과 차입의 증가로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2019년 60억 달러 규모의 22번째 IMF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추가자금을 지원받음.
- 석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세계 6위 규모의 인구, 지리적 이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잦은 테러와 인도와의 카슈미르 국경 분쟁 등 불안한 치안과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사업환경이 열악함.
-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한 임란 칸 정권이 2023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정과 사회 전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부세력으로 인해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은 여전히 요원함. 한편,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파키스탄의 이행취약국가(grey list) 지위를 유지함.